

(재)은평문화재단 문화강좌

2026년 예술인문 아카데미 강의 계획서

강사명	송현민		
강좌명	클래식 음악을 품은, 세계 음악 현장 기행 -공간이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이야기, 아는 만큼 보이고, 들은 만큼 들린다!	강의 시간	9. 16.(수) ~ 10. 7.(수) 10:00~12:00 (4회)
강습대상	누구나	수강료	40,000원
강좌실	은평문화재단 6강좌실	정원	80명

강좌소개	○ 본 강좌는 유럽의 유명 성당, 음악 페스티벌과 콩쿠르 현장, 세계 해양 도시에 위치한 공연장, 이색적인 역사와 매력을 품은 음악회장, 악기와 작곡가가 잠든 음악박물관과 기념관으로 떠나는 인문학적 여행이자, 그곳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음악회를 함께 만나는 감상의 시간이다.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진 건축, 미술, 인테리어, 도시문화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한마디로 '아는 만큼 보인다'와 '들른 만큼 들린다'가 겹쳐진 클래식 공간 인문학 기행이다. ○ 작곡가와 작품, 악기와 장르 등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던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음악을 품은 도시와 공연장 등 '공간'으로 떠나 클래식 음악을 만나보는 이색적인 강좌이다.		
------	--	--	--

□ 상세내용

주별	주제	세부주제	강의내용
1강 8/26	성당에는 신의 음성과 음악이 있었다!	유럽의 성당과 클래식 음악	성당(聖堂)에는 성(聖)스러운 종교적 기운과 음악으로 전하는 신의 음성(聲·목소리)이 있었다. 오르간의 울림과 레퀴엠을 노래하는 합창이 오르는 성당과 건축적 미학을 살펴보고, 유럽의 유명한 성당과 조화를 이루는 음악의 현장들을 살펴본다. 음악의 수도 비엔나의 슈테판 성당, 브루크너가 오르간 연주자로 활약했던 린츠 대성당, 노트르담 악파가 활약한 파리 노트르담 성당, 바흐의 평생직장 독일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성당, 오페라의 개척자 몬테베르디가 활약한 이탈리아 베니스의 산 마르코 성당에서 음악의 역사와 미학을 살펴본다.
2강 9/9	클래식 음악의 뜨거운 현장 축제와 콩쿠르	세계의 음악 축제와 콩쿠르	축제(페스티벌)는 음악가와 작품이 모이는 뜨거운 현장이다. 유럽에선 특색 있는 장소마다 특색있는 음악 축제가 열린다. 호수 무대가 펼쳐지는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 모차르트의 고장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자연과 어우러진 그로페베크 페스티벌, 원형경기장에서 오페라를 만나는 이탈리아 베로나 페스티벌, 폐공장이 멋진 공연장으로 변신한 루르 트리엔날레 등 유럽 축제의 현장으로 가본다. 새로운 음악가의 탄생을 기다리는 콩쿠르 현장도 축제의 현장이다.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스위스 거자 안다 콩쿠르 등을 통해 음악의 젊은 전사가 태어나는 축제 같은 경연의 현장도 살펴본다.
3강 9/16	바다에서 듣는 클래식이 더 멋있고 맛있다!	세계 유명 해양 도시의 클래식 공연장	바다가 펼쳐진 항구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책임지는 클래식 공연장이 랜드마크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항구의 엘프 필하모니홀, 노르웨이 오슬로의 오페라극장,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페하우스,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홀, 중국 상하이 심포니홀, 그리고 한국의 통영국제음악당과 아트센터 인천까지, 유명한 클래식 공연장은 왜 '바다에 위치해 있을까'. 세계적인 항구 및 해안 도시에 세워진 음악회장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음악과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본다.
4강 9/23	이색적인 음악회장과 음악박물관	역사와 독특함을 품은 세계의 이색 공연장과 박물관	목조 건축물의 매력을 품은 이탈리아 파르마의 파르네세 극장, 구름 형상을 닮은 오스트리아 그로페베크 야외극장, 독특한 원근법으로 무대를 재현한 이탈리아 비첸차의 올림피코 극장, 건축가의 이름을 딴 드레스덴의 젠티 오페라극장, 승마학교에서 공연장이 된 잘츠부르크 축제극장, 채석장에서 공연장으로 변신한 스웨덴 달랄라 극장 등 독특한 매력의 공연장과 그곳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음악회들을 만난다. 벨기에 브뤼셀의 악기 박물관, 비엔나의 모차르트 하우스와 베토벤 기념관 숲속의 영적인 울림을 느끼게 하는 에스토니아 작곡가 아르보 파트(1935~) 센터까지, 악기와 작곡가가 잠근 '소리 없는 공간'인 박물관과 기념관으로 떠나는 '조용한 음악 여행'도 즐겨본다.